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h1 style="margin: 0;">새고려신문</h1> <p style="margin: 0;">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div>	<p>2022년 7월 1일(금) (윤력 6월 3일) Пятница 1 июля 2022г. № 25 (11992)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7월1일, 참전용사의 날을 기리며...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가정과 사랑과 신뢰의 날, 러시아 공식 기념일로 지정

공식적으로 '가정과 사랑과 신뢰의 날'을 7월 8일로 제정하는 법령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다.

'전통적 가정의 가치 보전과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적, 도덕적 교육을 목적으로 '가정과 사랑과 신뢰의 날'을 7월 8일로 제정하여 기념한다.'고 법률정보 사이트에 공포된 문서에 적시돼 있다. 이날은 대통령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정과 사랑과 신뢰의 날 제정에 대한 아이디어는 2008년 무름 시 청년들의 주도로 발의됐고, 이후 아이디어가 국가 두마와 연방위원회에서 승인됐다.

가정과 사랑과 신뢰의 날 상징으로 카모마일꽃이 선정됐다.

카모마일은 순결, 신뢰, 온유함의 화신이 되었다.

사할린 주지사, 도네츠크의 샤흐초르스크 지역 방문

6월 29일(수)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업무차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샤흐초르스크 시를 방문했다. 전에 사할린 주는 샤흐초르스크를 후원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가운데 도네츠크 공화국의 도시 복구를 위해 사할린주 예비기금에서 복구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샤흐초르스크 시행정부 대표 알렉산드르 샤토브와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사할린주와 샤흐초르스크 시 행정부와 협력 및 상호협조에 대한 협약에 서명했다고 샤흐초르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세부 문서 공개는 되지 않았다.

사할린주는 3년에 걸쳐 샤흐초르스크 시를 복구할 전망이다.

주정부,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 위로금 지급 결정

사할린 주정부는 사할린 군부대에서 파견되거나 사할린 주민으로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특수군사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작전 중 전사한 사할린 참전용사들의 가족에게는 100만 루블리, 참전용사가 중상을 입은 경우는 50만 루블리, 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25만 루블리를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그외 연방 차원의 여러 지원금도 지급한다.

사할린주 두마, 2022년 예산 개정안 채택

사할린주 두마 의원들이 2차 회의에서 2022년 지역 예산에 대한 법안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분야 및 공직자의 임금과 주택 공공사업의 수수료 인상, 기타 중요한 지출에 대한 추가 예산 자금 배정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 교육, 사회 분야, 문화, 스포츠 등 사회적 목적 프로그램의 재정은 160억 루블리로 늘어난다. 우선적으로 지급할 명목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지원금이다.

주 예산에서 사회적 지원금은 26억 루블리로 고정됐고, 9월 1일부터 공직자의 임금이 8.2% 올라 이 명목으로 10억 루블리가 추가 책정됐다.

보건 분야에 50억 루블리가 배정돼 이 중 30억 루블리 이상이 의료 종사자의 임금으로 지급된다. 추가 배정된 예산으로 주 진료병원의 산부인과 병동 쪽에 88호 약국을 배치하기 위해 약국의 주요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소아 당뇨 환자를 위한 실시간 포도당 수치 측정기를 구입하게 된다.

교육 분야에는 22억 루블리가 배정된 가운데 학교와 유치원의 주요 시설 수리로 학교에 9억2,900만 루블리, 유치원에 3억 루블리가 배정됐다. 이 배정된 예산으로 교육

기관에 교과서 구입, 감시카메라와 보안 비상벨 설치를 하게 된다.

사할린주 아동 재활기관 이용권을 자발적으로 구대한 부모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주택 공공사업 개발 분야를 위해 70억 루블리가 배정되어 현재 주택 및 진입로, 주택가의 주요 부분 수리, 상하수도 시설 건설, 난방 시기 준비, 노후 주택 철거를 위해 지출된다.

또한 특별상황 사태 처리 목적으로 사할린주 예비기금에서 5억 루블리가 책정됐다. 이 배정된 자금으로 스미르니흐스키, 우글레고르스크, 돌린스크, 아나와 지역의 유실된 도로 보수공사와 교량 보수를 비롯해 유즈노사할린스크 마야콥스카야 강둑 보호를 위한 토목공사,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 상수도 정수시설 및 상수도관 수리에 투입된다.

교통 제반시설 및 도로산업 개발에 22억 루블리가 배정돼 도로 정비 위한 장비 구입, 대중교통 서비스 기관, 도로망 수리에 사용된다.

2022년 예산 수익의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총예산은 392억 루블리가 증가한 1,662억 루블리이며, 총지출에 있어서는 확정된 예산 지표에서 395억 루블리가 증가한 1,878억 루블리가 된다.

리마렌코 주지사, 러시아 연방 및 주택 공공사업 및 건설부 장관과 만나

주택 및 건설부 장관 이레크 파이쉴렌과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가 장관실에서 실무 회담을 가졌다.

긴급구조 자금으로 지역 주민의 이주 및 건축 부문 개발, 주 주택공공사업, '주거 및 도시환경' 기획 실행의 문제들을 논의했다.

사할린주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주택 105.1m²가 운용됐으며 지난해 유사시기보다 70%가 더 증가했다. 이외에도 2017년 1월까지 확인된 노후주택에서 이주에 따른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했고, 2021년에는 주 예산으로 2017년 1월 1일까지 확인된 노후주택에서 이주 작업에 착수했다. "주민들에게 편안한 주거 여건 조성은 우리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노후주택으로 확정된 날짜와 관계없이 구역 종합개발 기획의 일환으로 현재는 새로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원활한 이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 접근법이 특히 중요하다."고 이레크 파이쉴렌 건설부 장관이 말했다.

이번 회담의 또 하나의 의제는 관광 제반시설 개발과 코르사코브 항구의 제반시설 개건이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코르사코브 항구는 사할린주 발전의 열쇠이다. 매일 항구를 통해 수천 톤의 화물이 드나들며 사할린주의 건설 증가 속도와 맞물려 그 수치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수산업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에게 정박항과 첨단기술 설비 개건이 절박하다. 또한 신선한 생선 보존과 가공에 따른 제반시설 건설이 필요하다. 항구 단지의 대대적 재건은 극동 지역 전체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재 여건 속에 안정적 개발이자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획 문서 준비에 따른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며, 코르사코브 지역 항만 제반시설 건설은 2023년에 착수 준비가 될 전망이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6루블리 9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차 율리아 선생

주 활동으로 심리학 교육, 부 활동으로는 '소셜 피트니스'

얼마 전에 '소셜 피트니스' 프로그램으로 매 주 일요일에 펼쳐지는 요가 수업을 다녀왔다. 요가 강사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확인하니 이 분은 14여년 전에 취재한 차 율리아(1983년생) 선생이었다. 반가웠고 활발한 성격으로 기억한 그녀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차 율리아 선생의 전공은 심리학이다. 그저 상담을 하는 전문가만 아니라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사다. 그는 10학년 때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다. 이 결심에 큰 역할을 그 당시 아니와 학교의 상담교사로 활약하신 세르게이 레오 니도위츠 헤일리크 심리학자가 하였다고 한다.

"율리아, 심리학은 딱 너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다"라고 하셨다고 한다.

그 말이 100% 맞았다. 아니와 출신인 그는 아니와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모스크바국립 사회대학에 입학하여 2005년에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사할린에 돌아왔다. 그후로 계속 심리 전문가로서 계속 경험을 쌓았다.

그 동안 유치원, 형무소 미성년위반자센터, 상담센터 등을 비롯 여러 기관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로 활동해왔고 그리고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사할린국립대, 사할린예술전문 대학(폴레즈) 등에서도 일해왔다.

그는 정말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적성에도 맞고 항상 성장을 시키는 직업이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2012년부터는 그는 주 교육부 소속 사할린 주 교육진흥소에서 심리학 강사로 일하고 있다. 사할린주의 교사들을 위주로 심리학 교육을 가르친다. 연수, 또는 특강 등 여러 형태의 수업을 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 수강생들에게 재미있게 교육 자료를 소개하고 싶어하고 신경을 많이 쓴다.

교육진흥소의 수업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어서 다른 일을 지장없이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자유 출근 조건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진흥소 수업은 주로 오전에 하도록 하고 지방에 나가 외부 강의도 많이 한다. 지방 학교 교사들은 이에 아주 반가워 한다. 그래서 올해 그는 자기가 일하는 과(초,중,고 등 교육 및 심리학 교육)에서 우수 교육자로 선정되었다. 우수 교육자에 대한 조건이 많다. 수강생들의 만족도, 수강생들의 교육받기 전 사전지식과 수료 때 지식 정도 등등 많은 것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정확한 지수가 나온다고 한다.

얼마 전에 학교 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했는데 이 연수과정을 심리학 전공을 적극 추천한 그의 학교 심리학 전문인 헤일리크 선생님이 수료했는데 그가 하신 말씀이 율리아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고 한다.

"정말 질적이고, 아주 재미있고 훌륭한 시간이었다. 이런 만족을 받은지가 꽤 오래 되었다. 정말 고맙다"라고 그는 말했다.

율리아는 '리더'학교의 지도자다. 주 교육부 산하 보충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리더십이 강한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션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원격으로 수업을 받고 1년에 두 번은 방학 때 1주일간 캠프에 소집하여 활동을 한다. 그때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훌륭한 시간을 보낸다.

"마음이 아름답고 추진력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정말 훌륭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리더들이 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율리아가 말했다.

그가 교육진흥소에서 일하는 외에는 물론 개인적으로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 따로 사무실도 임대하고 있다. 상담 대상은 다양하다고 한다. 사춘기도 있고, 졸업시험을 앞둔 학생도 많고, 한때 상담이 필요한 부부가 많았고 임신 부, 가정 등이 있단다.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율리아의 인생은 심심하지 않다고 한다.

심리학 외에는 요가 강사 과정을 수료한 후 2005년부터 요가 수업을 진행했다. '소셜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생긴 후부터 그는 이 프로그램에 요가 강사, 필라테스 등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에는 1주일에 3번 시간을 투자한다. 자기 몸도 관리하고 이에 필요를 느끼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한다.

그는 가족과 자신의 발전 -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두 아들(12세와 2세)과 든든한 남편은 너

무 소중한 가족이다. 남편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라, 행복한 율리아는 셋째 생각도 하고 있다. 부부는 서로의 대한 배려심도 많다.

율리아는 외동딸이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형제가 많아서 수많은 사촌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 친척이 많이 있는 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한다.

40을 바라보는 율리아는 현재가 좋다고 한다. 전에는 40이라면 인생의 후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절대 아니다. 자기도 어느 만큼 성장하고 경험도 쌓았고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하니 만족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보내는 시간도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요즘은 정원 식물 관리와 밭 농사일에 빠졌다.

둘째가 태어난 이후 예산 분야의 근로자(교육자)로서 적은 이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개인 집을 마련했다. 이 집에서 2년째 살고 있는데 열매도 심고 꽃도 심고 파, 감자 등 심는다고 한다.

율리아는 취미는 많은데 자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없다고 한다.

노래도 잘 하고 음악도 즐기고 그림그리기도 좋아하고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고 독서를 엄청 좋아하고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나가는 자세가 돼 있다.

율리아는 "삶에서 많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밝은 모습의 이 여성은 편안함을 안겨주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록 이 세상이 더 밝아 보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의 행복 세포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에서 바다의 정령들에게 고사 지내다

사할린 포로나이스크 지역에서 연어잡이 시작을 위한 전통 의식이 진행됐다.

사할린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대표들이 정령을 달래는 고사(告祀) 의식을 치렀다.

6월 말 연어잡이 조업에 앞서 정령들에게 지내는 고사는 사할린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전통의식으로 올해 30회를 맞아 더욱 특별했다. 사할린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해안가에서 민속경기를 치르며, 공연 프로그램도 펼친 명절다운 행사가 되었다.

바다의 정령들에게 바치는 제물은 쌀, 죽, 차, 설탕, 산열매, 산마늘이 있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백산차와 전나무가 추가되었다.

На Сахалине совершили обряд кормления духа моря

На Сахалине в Поронайске прошел традиционный праздник, посвященный началу лососевой пути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ровели обряд задабривания духа.

Кормление духа — это традиционный обряд,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а совершают перед началом путины в конце июня. Но в этом году он был особенным, так как проходил в 30-й раз. Это был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с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состязаниями на берегу моря, на который съехались островитяне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Рацион морского духа в этот раз состоял из риса, каши, чая, сахара, ягод, черемши, и ко всему этому добавили обязательные ингредиенты — багульник и елочку.

사할린 주민들에게 이탈리아 영화 상영

러시아 이탈리아어의 영화제로서 대규모 제 8회 러시아-이탈리아 영화축제가 7월 1일부터 8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콤포몰레츠 영화관에서 열린다.

벌써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러시아-이탈리아 영화제에 세계 영화제에서 우승을 차지한 박스 오피스 상위권의 영화부터, 다큐픽션에서 단편영화에 이르는 독립영화들까지 10편의 폭넓은 영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영화들은 사할린에서 첫 상영작들이다. 영화제 개막작은 리카르도 밀라니 감독의 생기 넘치는 코메디 장르의 <로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모험(12세 이상 관람)>영화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상영 후 러시아 15개 이상의 도시에서 2022년 이탈리아의 새로운 명작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고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전했다.

Сахалинцам покажут итальянское кино

Крупнейший италоязыч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страны, VIII российско-итальян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RIFF, пройдет с 1 по 8 июля в ККЗ "Комсомолец"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же в восьмой раз на фестивале RIFF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обширная программа итальянских фильмов — 10 картин: от лидеров бокс-офиса, победивших на мировых кинофестивалях до картин независимых режиссеров, которые не доходят до проката; от документалки до сборников короткого метра. Каждый показ — сахалинская премьера.

Фильмом открытия станет жизнеутверждающая комедия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в Рим. Новые приключения" (12+) Риккардо Милани.

Посл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ще более 15 городов России увидят лучшее новое кино из Италии в 2022 году, сообщает оргкомитет фестиваля.

전 러시아 올림픽의 날 기념, 네벨스크 주민들 스포츠 축제 개최

제33회 전 러시아 올림픽의 날 기념의 일환으로 네벨스크 지역에서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노동 및 국방 대책' 공로자들에게 훈장 수여로 시작됐다.

스포츠 행사는 체력 단련 자세로 이어져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쉬운 동작들을 반복했다. 이후 참가 희망자들은 줄넘기, 팔굽혀펴기, 플랭크 자세 고정으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고,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도 있었다.

가장 볼 만한 것은 스타키즈(StarKids)달리기로 가장 어린 1세-5세의 유아들이 이에 참가했다. 네벨스크 시행정부 는 모든 달리기 참가자들에게 제과류 선물을 선사하고, 그 밖의 경기 우승자와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Невельчане устроили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в честь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дня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прошли массовые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мках XXXIII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дня.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алось с вручения знаков отличия ГТО.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продолжился зарядкой, участниками которой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вторили несложные движения. Затем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в прыжках на скакалке, отжиманиях, стойке в планке и установить рекорд дня.

Самыми зрелищными стали забеги StarKids, здесь участвовали самые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в возрасте от 1 до 5 лет.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забегов вручили сладкие подарки, а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состязаний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грамотами и медалям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невелич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8면에 계속)

코르사코브 한인회 소식

지난 25일(토) 코르사코브 한인회(공식 명 코르사코브구역 한인디아스포라 협회)의 총회가 소집된 가운데 본회 새 회장 선거가 있었다. 참석한 유권자 34명이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으로 이 블라디미르 연주노위츠(만 55세)를 선출했다.

한인 사회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이 블라디미르는 앞으로 코르사코브 한인회가 더욱 단결하고 발전하길 바라며, 한민족 문화와 언어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세대와 차세대와 잘 소통하여 민족 전통과 풍습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인회 활동에 더 많은 젊은이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이 블라디미르 신임회장과 박창순 노인회 회장을 비롯해 한인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망향의 언덕에

있는 망향의 탑(사할린희생동포기념위령조각탑)의 현장에서 대청소를 하였다. 코르사코브 한인회는 이 조각물이 세워진 이래로 매년 여러 차례 이곳에 와서 대청소와 별초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활동은 계속된다.

또한 최근에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문화 관련 활동이 많은 가운데 한인회 소속 '미니말' 민족타악기팀, '아리랑' 앙상블이 도시의 여러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 활동 담당은 박창순 임원이 맡고 있다.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미니말'팀(지도 민 왜체슬라브)는 25일에 열린 청년의 날 행사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60-70대로 구성된 '아리랑'무용팀(단장 박창순)은 지난 28일 사할린주 수의학 전문가 경연대회 식순전 공연에 참가했다고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텔레그램-채널이 전했다.



(본사 기자)

사할린 국립대, 신입생을 기다린다

지난 6월 18일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입학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의 입학위원회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바그다사란의 말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15% 많은 2500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는 매년 새로운 전공 학과를 마련하고 있다. 2022년에는 수학교육(석사), 사회사업(학사) 전공 모집이 처음 진행되는 등,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또한 2년간의 공백기를 거쳐 인기 있고, 요구되는 '동양학과 아프리카학' (아시아(한국 포함)와 아프리카 국가의 언어 및 문화 연구)학과에 대한 모집이 진행 중이며, 석유가스 관련 지질학과가 처음으로 개설된 가운데 이 학과의 수업은 통신교육으로 진행된다.

국가수능시험(대학입시 시험)에 따른 입학 점수도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 대학 지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언어학과와 교육학과였다.

또한 사할린 국립대학교에는 '두 개의 졸업장'이라는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할린 국립대학교와 연방 명문 대학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고등 경제대학 등)과의 공동기획으로 이뤄진다. 이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은 교육 이수자의 범주에서 전문적인 이중 교육에 대한 두 번째 졸업장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사할린 국립대 대학생이 되어 국가 장학금을 받은 사람중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정 목적으로 복수학위 프로그램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입학 캠페인 홍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행사를 개최한다. 예를 들어, 언론 역사 및 동양대학은 지원자들을 위한 이벤트 추첨을 실시하는데 입학 신청 후 지원자가 받은 추첨권을 박스에 넣으면, 2022년 9월에 추첨이 이뤄진다. 물론 당첨자는 대학 신입생이 되어야만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는 미래에 일류 전문가가 되어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신입생을 기다리고 있다.

(사할린국립대 학생인 위로비요와 다리야 견습 기자)

5월말에 사할린 한인단체들이 해마다 작성하는 결의문을 대한적십자사에 보냈다. 지난 6월 30일(목) 한국 적십자사가 일본 측과 있는 회의에서 결의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아래에 결의문 내용 (사할린주한인협회 제공) 게재.

본사 편집부

결 의 문

2007년 3월, 2009년 3월, 2010년 4월, 2011년 4월, 2012년 4월, 2013년 5월, 2014년 5월, 2015년 5월, 2016년 4월, 2017년 4월, 2018년 4월, 2019년 4월 사할린 한인 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결의문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1. «사할린 동포 지원 한-일 적십자사 공동 사업체»에 사할린 한인 단체 대표자를 참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손들을 희망자에 한해 영주국권을 허용하라.
3. 2015년도 이후 영주국권이 마감되더라도 현지에 남은 1세대들을 위해 일본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4. 사할린 1세 잔류자들에게 매월 미화 300달러의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라.
5. 부 또는 모 사망자의 모국방문을 추진하라.
6. 징용 당한 사할린 한인들의 미지급 임금, 우편예금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사할린 한인 특별가금으로 조성하라.
7. 1세가 영주국권 및 일시모국 방문 시 동반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
8. 2-3세 들이 영주국권 한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왕복 비행기료를 지불해 줄 것.
9. 사할린 1세 잔류자들을 위해 양로원 건립과 운영비 지원하라.

본 결의문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러시아 및 일본 정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2022년 5월 20일

사할린한인협회 회장 박 순옥
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박 경춘

결 의 문

2007년 3월, 2009년 3월, 2010년 4월, 2011년 4월, 2012년 4월, 2013년 5월, 2014년 5월, 2015년 5월, 2016년 4월, 2017년 4월, 2018년 4월, 2019년 4월 사할린 한인 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한 한국 정부에 대한 결의문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1. «사할린 동포 지원 한-일 적십자사 공동 사업체»에 사할린 한인단체 대표자를 참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사할린동포 특별법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사할린한인이라는 공식적 용어를 정의 할 것: «사할린한인»이란 1945년 9월 2일 이전에 출생했으며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강제동원돼 역사적 상항 때문에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한인들과 그들의 직계비속을 말함.
 - 거주 중인 국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시민권을 회복하라.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 간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추진하라. 한국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 사할린동포 각 세대별로 조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영주국권 시작되기전에 (1992년 9월 29일) 1세 부모가 별세한 세대와 사할린에 자녀를 방치하기 싫어서 영주국권을 포기한 1세 부모가 사망한 세대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3. 국회에서 사할린동포 특별법안 논의에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단체 대표자를 참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한국 국적 없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러시아 현지 자손들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라.
5. 2015년도 이후 영주국권이 마감되더라도 현지에 남은 1세대들을 위해 한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6. 사할린 1세 잔류자들에게 매월 미화 300달러의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라.
7. 부 또는 모 사망자의 자녀 모국방문 인원을 확대하고 자격을 완화하라
8. 사할린 1세 잔류자들을 위해 양로원 건립과 운영비 지원하라.

2022년 5월 20일

사할린한인협회 회장 박 순옥
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박 경춘

세계화의 끝자락에서

30년 남짓한 세계화가 저문다. 미국이 시작했고, 끝내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월가의 자본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했고, 중국이 세기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공장들은 이익창출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이전되었다. 값싼 물건으로 일반인들의 장바구니를 채웠다. 풍요의 시대였다. 유일한 패권국가로서 신자유주의를 펼친 미국의 역할이었다. 기축통화 달러의 힘이였다. 그러나 세계화는 미국 내 중산층을 무력화했고, 양극화를 초래했다. 세계화될수록 자본소득은 배가 되고, 근로소득은 정체되었다. 힘을 얻은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신형대국론'이라는 '중국몽'을 추진했다. 미국은 양극화가 심화되어 정치지형이 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패권전쟁을 내세워 자국 우선 고립주의를 택했다. 그러다 초유의 펜데믹이 왔고, 세계 공급망이 무너졌다. 경기부양을 위해 미국은 한 해 예산보다 많은 5조 달러를 유통시켰다.

그간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위해서,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세계로 수출했고, 각종 전쟁과 신흥국 재정 파산을 유발시켜왔다. 이번엔 '가치동맹'을 내세우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패권 유지 전략을 구사했다. 관성으로 행동했다. 대륙 세력의 약한 고리인 우크라이나 먹이를 러시아에 내밀어 삼키게 했고, 안보 공포심을 유발하여 유럽을 NATO로 재결속하고, 그것을 아시아로 확장시키고 있다. 러시아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 중국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편가르기로 모두의 힘을 빼고, 최종목표는 중국을 금융/기술/군사적으로 가두어, 정권 길들이기를 통해 세기의 하청공장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와 최대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스스로 금리를 올려 자금회수 할 시기를 놓쳤다. 그 결과 COVID19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인플레이션이 왔다. 이론상 GDP가 미국의 40%이하일 때는 화폐나 금융(일본플라자합의)으로 제재가 가능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공황으로 40%수준인 중국을 손볼 수 없었다. 현재는 GDP 70%가 넘어서 무역/기술/금융패권으로 제재 방법이 전이 중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라시아 양단에 긴장을 유지하여, 강 달러를 유지하고, 금리를 자이언트스텝으로 인상시키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워싱턴의 교만의 결과다.

그간 세계화 속에서 금리는 날뛰어도 한 자릿수였고, 생필품은 사재기가 없는 풍요한 시대를 살아왔다. 인플레이션을 무시했다. 이제 세계화는 석양이다. 어떤 바이러스보다 사악하고 지독한 것이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다. 미국에서 창궐하기 시작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변이되면 전쟁보다 무서운 재앙이다. 특히나 미개발국과 개발도상국, 선진국 저소득층에겐 생사를 가름한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이다. 가진 자들의 탐욕의 결과다.

미국의 5월 인플레이션이 8.6%이다. 살인적이다. 러시아는 2월부터 특수군사작전에 따른 서방 제재로 5월 인플레이션이 17%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대비 경제규모가 13배 작으므로 아주 선방하고 있다. 소련붕괴 이후 몇 차례 겪었고, 정부가 잘 대응해서인지 매장에 물건이 없거나 사재기는 없다. 일반 국민들도 덤덤하다. 식량과 에너지가 자급자족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반도를 보자. 북한은 이미 고난의 행군을 겪어서 면역체계가 있다. 한국이 문제다. OECD 38개국 중 식량 에너지 자급률이 최하위이다. 세계화의 종말은 국경이 높아지고, 식량과 에너지가 무기화되기 쉽다. 석유는 생활 불편을 감소할 수 있지만 식량은 생사를 좌우한다.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한국이었다. 그러나 세계화가 끝나면 한국이 위기이다. 50대 이하 대다수는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모를 것이다. 식량이 무기화 되면 보릿고개 단어가 현실화될 것이다. 바닷길이 막히고, 식량과 자원이 무기화될 때, 아직까지 러시아와 소련을 구분 못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은 어떤 모습일까? 모스크바에서 바로 본 세계화의 끝자락, 한국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을까?

고려 신문(모스크바) 한글판 편집장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ГУ ждет абитуриентов

С 18 июня стартовала приемная камп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 словам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секретаря приемной комиссии СахГУ, Александра Сергеевича Багдасаряна, в этом году ожидается увелич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абитуриентов на 15%, что будет составлять примерно 2500 человек. Ежегодно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едлагает новые направления подготовки. В 2022 году впервые ведется набор на специальности социальная работа (бакалавриат) математ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магистратура). Также после двухгодичного перерыва ведется набор на популярную специальность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и африканистика" по профилю "Языки и литература стран Азии и Африки" (Корея).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предлагается специальность геология с нефтегазовым профилем на заочной форме обучения. При этом проходной балл ЕГЭ не измен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Самыми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специальностями среди абитуриентов стали: лингвистика и педагогика.

Также в СахГУ действует программа "Два диплома". Эта программа -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ВУЗов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ысш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и и тд). Участники этой программы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второй диплом 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одготовке в рамках получ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Любой студент может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этой программы, достаточно лишь стать студентом СахГУ на бюджетной основе. Информацию о наличии программы двух дипломов на определенн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можно уточнить на сайте университета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внимания к приемной кампании СахГУ, институты проводят различные акции и мероприятия. Например,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проводит лотерею для абитуриентов. Для участия нужн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в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получить лотерейный билет, опустить билет в коробку и стать студентом 1 курса СахГУ. Призы будут разыграны в сентябре 2022 года. Университет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т новых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в будущем станут первокласс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 внесут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Дарья Воробьева,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работы лауреатов конкурса читательских эссе, посвящ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ю "Пожалуйст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Син Кёнсу (Шин Кун-Суук). Организатор конкурса - СахОУНБ.

Размышления о прочитанном

Ушаева Арина (1-е место)

Мы опоздали.

Пробил страшный час.

Глядим мы со слезами потаенными,
как тихими суровыми колоннами
уходят наши матери от нас...

Е. Евтушенко «Уходят матери»

С творчеством 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Кун-Суук Шин я познакомилась ещ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Но это было поверхностное знакомство, оно ограничилось лишь моими знаниями о существовании этого автора. Тогда же я впервые услышала о ее нашумевшей книге «Пожалуйст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За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но отложила чтение эт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 потом», успешно о нем забыв.

Но, как говорится, всему свое время. И вот, давно забытая книга снова появилась в моей жизни... и разбила мне сердце.

Наверное у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в голове есть специально отведенное место (представим, что это комната) для мыслей, которых он боится, избегает, прячет. Но, бывает, что в вашу жизнь неожиданно врывается «нечто», которое волнует сознание, встряхивает, переворачивает все то, о чем вы бы даже не подумали.

Для меня этим «нечто» стала книга «Пожалуйст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Не обязательно читать аннотацию к этому произведению, чтобы понять, о чем оно. Достаточно одного взгляда на обложку... «Представь, что однажды твоя мать просто исчезнет... Кого ты будешь винить?» – это первый вопрос, который автор задает своим читателям. Становится страшно. А ведь ты даже не открыл книгу, не прочитал и страницы. Если это только на обложке, что же дальше?

А дальше – каждому свое. Мне кажется, не 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тема произведения проста и понятна, каждый читатель найдет что-то особенное для себя. То, что привлечет и так же, как и мне, возможно, разобьет сердце...

Именно так – «разобьет сердце», избитая фраза, но после прочтения книги только это выражение подходит, чтобы описать мои ощущения.

Тяжело оставаться в стороне, когда автор делает тебя частью сюжета, частью истории. С первой страницы книги и до последней мы находимся в поисках. У нас пропала мама. Вс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ведется от второго лица: «ты предлагаешь распечатать листовки», «ты записываешь...», «твой младший брат», «ты ворчишь...»... на каждой странице – ты, ты и только ты.

Собственные чувства смешиваются с чувствами героев, и, кажется, что уже не вымышленный персонаж, а именно ты не знаешь точную дату рождения мамы, это твои визиты в отчий дом становятся короче и реже, ты огрызаешься в ответ на любые мамин вопросы, именно тебе некогда слушать ее телефонные разговоры. Ты ничего о ней не знаешь, и даже того, где сейчас она находится...

А вы когда-нибудь задумывались, что вы знаете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всю свою жизнь, а они вас – несколько лет (то есть с момента вашего появления)? Может быть для вас, как и для героев книги, станет открытием, что мама – мамой не родилась, что у нее было детство, она «тоже делала первые шаги, а потом ей тоже исполнялось три, двенадцать, двадцать лет», «что она живой человек и способна на чувства».

На все происходящее в произведении я посмотрела под разными углами: от лица старшей дочери, старшего сына, мужа, и, наконец, от лица самой главной героини.

Сколько боли и страданий, слез и отчаянья в словах сыновей, дочерей и мужа – с каждым из героев так или иначе приходится делить их чувства! Как винят они себя за упущенные мгновения с матерью, с женой!

Страница за страницей, каждое слово накладывает огром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Кажется, что ты физически ощущаешь тяжесть чувства вины, оно давит после каждого вопроса героев книги, после каждого их воспоминания, после каждого обращения «ты». И с каждым словом это чувство вины как грозовая туча только нависает и сгущается над тобой.

В голове появляются навязчивые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не снимают груз, а только дополняют его: а когда я последний раз звонил маме? Когда я приходил к ней просто так? Что я о ней знаю? Как она себя чувствует? Счастлива ли она сейчас? Была ли она вообще по-настоящему счастлива когда-нибудь? А

что сделал я, чтобы это было так?

Это чувство не отпускает до последней страницы книги, а потом еще какое-то время. И чуть позже, придя в себя, ты все-таки набираешь номер телефона матери, и все в порядке. И все, что ты чувствовал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назад, стирается, просто исчезает, уходит на второй план, прячется в ту комнату с нежелательными мыслями.

По-другому, в светлых тонах показана мать.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на страницах появлялся образ матери, весь сюжет приобретал яркие теплые краски. Она обращается с любовью к каждому дорогому человеку, пусть они и не слышат ее, но она их любит. Каждого. И большего ей не надо.

Интересно, на страницах книги часто рядом с описанием матери появляется ненавязчивый образ животного – коровы («глаза, которые всегда были блестящими и большими, как глаза коровы»).

Корова для многих народов является олицетворением плодородия, процветания,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и терпеливости, так как корова дает человеку пищу, ничего не требуя взамен. Может, неспроста появляется именно этот образ?

Вспомните, ведь рядом с матерью, вокруг нее, все жило: куры высидели яйца, собаки щенились, семена всходили – «все, что касалось ее руки, начинало буйно расти и плодоносить», все, чего она касалась «расцветало и давало жизнь, наливалось жизненными соками и приносило плоды».

Сравнение с животным натолкнуло еще на одну мысль. Может, мать не просто так пропала в толпе? Ведь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кажется нелепым такое исчезновение.

Но вдруг, и это не случайно? Знаете, говорят, что когда животное чувствует скорый конец, оно уходит. Может быть, и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мучаясь от болезни, чувствуя, что скоро покинет этот мир, ушла, чтобы не обременять своих близких? Пытаясь так позаботиться о них, оградить от переживаний утраты.

Образ каждого из героев приземленный, но когда в главе «Другая женщина» появляется образ матери – он как будто воздушный, неземной. Она со стороны наблюдает за близкими ей людьми, прощает и дает наказания.

Присутствие матери в книге заканчивается словами: «Знает ли мама? Знает ли она, как сильно нужна была мне всю мою жизнь?»... Слова прозвучали, как будто последнее запоздалое обращение к ней от детей.

Мама... О чем вы думаете, когда слышите это слово? Что представляете? Чей голос звучит? Какой запах вы чувствуете? Что ощущаете?

Может, это тихие колыбельные перед сном? Или прикосновение нежных прохладных рук к пылающим во время болезни щекам? Запах домашней выпечки в выходной? Может осуждающий взгляд за плохие оценки в школе? Разговоры по душам? Советы, которые сначала кажутся нелепыми, а через какое-то время становятся жизненно важными?

Первый человек, чей голос мы слышим, чьи прикосновения ощущаем – это мама. Вот кто дарит нам искреннюю и бескорыстную любовь с момента появления на свет. Вот, кто делает нас счастливыми.

Книга заканчивается словами: «Пожалуйст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Не кажется ли вам, что это обращение к каждому из нас?

Подводя итоги своим размышлениям, хочется сказать, что в книге отражен менталитет Южной Кореи – это находка для корееведа: быт, обычаи, одежда, традиционная еда, посуда, семейные отношения, описание городской и сельской жизни.

И пусть наш быт отличается, но все же,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отношения детей к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 это то, что никого не оставит равнодушным.

Перелистывая одну страницу за другой, между строк я читала: «Имея – не храним, а потерявши – плачем». И на одной из страниц я нашла фразу, может быть, это самые ценные слова произведения: «До момента ее исчезновения ты жил, не думая о ней».

Красной нитью проходят эти слова от героя к герою, от одного члена семьи к другому. И все это время в голове звучат слова: «Знает ли мама? Знает ли она, как сильно нужна была мне всю мою жизнь?»

Как сказал Э. М. Ремарк: «Человека теряешь только, когда он умирает». Так может каждому из нас стоит сказать самым близким людям, как сильно они нам нужны? Пока не стало поздно.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деры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договорились укрепл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Лидеры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будут укрепл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твет на ядерные и ракетные угрозы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жо Байден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Фумио Кисида достигли данной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в ходе трёхсторонней встречи, состоявшейся 29 июня в Мадриде в рамках саммита Организации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ого договора (НАТО). Открывая встречу,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тметил,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тремя странами становится всё более важным перед лицом растущих ядерных и ракетных угроз со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а, а также глобальных проблем. Юн Сок Ёль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трёх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танет осью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о всём мире. Президент США тоже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трёх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заявив, что оно имеет решающее значение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общих целей, включая полную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ю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Японский лидер также согласился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ыразив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возможных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действий Пхеньяна. Лидеры трёх стран отметили, что достиж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ядерной и ракетной программах представляют серьёзную угрозу не только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о и для региона и всего мира. Они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вест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повышении уровн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Лидеры РК, США и Японии согласились с тем,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их странами, разделяющими основные ценности либеральной демократи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и верховенства закон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ажно при реагировании на региональные и глоб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В Сеуле пройдёт выставка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менов совместно с посольством Казахстана проведут выставку, посвящённую культуре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истории их переселения. Выставка пройдёт с 30 июня по 6 августа в галерее фонда в сеульском округе Чун-гу по случаю 30-лет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К и Казахстаном. На выставк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едметы быта, записи, документы, аудиозаписи, фото- и видеоматериалы, рассказывающие 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в 1937 году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США сохраняют численность своих войск в РК

США с большой долей вероятности сохраняют нынешнюю численность своего военн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в РК. Комитеты Сената и Палат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 делам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Конгресса США одобрили законопроект об оборонной политике Вашингтона на 2023 финансовый год с сохранением 28.500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на юг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законопроекте Акта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е говорится, что присутствие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США служит «стабилизирующей силой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ощное воен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в РК помогает сдерживанию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США, их союзников и партнёров», — говорится в тексте законопроекта. В связи с 70-летием подписания договора о взаимной обороне в документ был добавлен пункт о важ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альянса. В частности,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союз РК и США сложился на основе жертв, принесённых обеими сторонами, являясь основ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мира в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Права на показ фильма «Решение уйти» проданы в 193 стра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Решение уйти», удостоенный приза за лучшую режиссуру на 75-м Каннском фестивале,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 данным кинодистрибьютора CJ ENM, права на показ картины были проданы в 193 страны. Фильм рассказывает историю детектива Хэ Чжуна, который ведёт дело об убийстве. Он влюбляется во вдову, которую подозревают в преступлении. 29 июня премьера фильма состоялась в РК и Франции, 13 июля состоится в Индонезии, 14 июля - в Сингапуре, Малайзии, в Брунее, 21 июля - в Гонконге и Макао, 22 июля - на Тайване. В августе «Решение уйти» появится на экранах кинотеатров в Таиланде и Чехии, в октябре -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 странах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и.

В РК растёт доля молодёжи, страдающей депрессией

В период с 2017 по 2021 год количество обратившихся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 с симптомами депрессии выросло на 35,1% — с 691.164 до 933.481 человека. Таковы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ённого Корей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по оценк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Особенно чувствительна усугубление ситуации в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от 10 до 39 лет. Так,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29 лет вырос на 127,1%, от 10 до 19 лет - на 90,2%, до 10 лет - на 70,2%, от 30 до 39 лет - на 67,3%. Если в 2017 году наибольшая доля таких пациентов приходилась на людей от 60 до 69 лет (18,7%), 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х место заня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от 20 до 29 лет (19%). (RKI)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южнокорейцев высказалось против оказания военной помощи Украине

Более 70 процентов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считают, что Сеул не должен вмешиваться в конфликт на Украине и помогать Киеву оружием и боеприпасами, ограничившись поставками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Таковы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ведённого накануне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в Мадрид, где он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саммите НАТО.

Как говорится в информации, распространённой агентством по изучению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Хангук Гэлоп", в период с 21 по 23 июня среди тысячи граждан РК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18 лет был проведён опрос, где выяснялось, как их страна должна вести себя в отношении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72 процента опрошенных высказались за то, чтобы Корея помогала Украине продукцией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евоен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 медикаментами, продуктами питания и прочим. Идею направ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ружия и боеприпасов поддержали лишь 15 процентов респондентов, ещё шесть процентов высказались против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Украине в любом виде и восемь процентов затруднились определиться с позицией.

Отметим,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а Сеул увеличилось давление со стороны стран Запада, которые настаивают, чтобы Южная Корея начала поставки оружия, боеприпасов 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Киеву. До сих пор корейцы хотя и поддержал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анкции Запада против Москвы, в то же время ограничивались поставкам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Киеву, неоднократно отказываясь ввязываться в далекий для них конфликт. Однако после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10 мая консервативно и проамерикански настрое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стали заметны подвижки Сеула в сторону Вашингтона.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ожидают, что РК може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рограмме Запада по поставкам оружия Украине в ходе саммита НАТО 29-30 в Мадриде, куда впервые был приглашен 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помимо стран альянса также приглашены ещё Япония, Новая Зеландия, Австралия и собственно Украина.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но и в правящем лагере, а также среди оппозиции РК сильны настроения против активного вовлечения Сеула в конфликт на Украине. Как считают противники поставок оружия Киеву, в случае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оружием и боеприпасами это приведет к серьёзному конфликту Южной Кореи с Россией, чья позиция важна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роме того, ряд экспертов РК прогнозируют, что Москва может в ответ возобновить программы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хеньяном и начать передавать КНДР технолог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новейших вооружений, что уж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прямую угрозу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В этой связи многие политики из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подвергли критике визит лидера партии Ли Чжун Сока на Украину, который посетил Киев в начале июня и провёл переговоры с Владимиром Зеленским. Несмотря на поездку 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затем заявили, что политик не действовал в качестве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и они не передавали через него Зеленскому никакого послания.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мая Сеул посетил Джо Байден, который также обсуждал с Юн Сок Ёлем события на Украин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кулуарах саммита НАТО в Мадриде пройдёт встреча Юн Сок Ёля и Владимира Зеленского, и уже после этого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определит свою позицию в отношении возможных поставок оружия и боевой техники Украине.

Недавно Сеул заявил, что предоставит Киеву ещё один пакет гуманитарн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мощи на общую сумму в 50 млн долларов, но при этом было подчеркнуто, что в поставках буде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евоенная продукция и товары. Кроме того, комментируя грядущую поездку президента РК в Мадрид,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участие Юн Сок Ёля в саммите НАТО не означает антироссийского или антикитайского разворота Сеул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К, 26 июня 2022 г.)

Korean Air наращивает объё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еревозок

Крупнейша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Korean Air планирует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ейсов, учитывая приближение летнего сезона отпусков, доведя к сентябрю объём перевозок до 50% от допандемий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С этой целью с июля будет увеличено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в Нью-Йорк, Гонолулу, Париж и Франкфурт. Кроме того, с июля будут возобновлены полёты в Милан,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с марта 2020 года. С сентября возобновляются полёты в Рим. Во время актив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Korean Air сосредоточилась на грузовых перевозках, под которые была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а часть пассажирских самолётов, оказавшихся не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Теперь компания планирует поэтапно возвращать самолёты на пассажирские перевозки.

KBS World

В РК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идентификация личности через смартфон

С 29 июня в РК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начнёт действовать электронный паспорт или услуга идентификации личности при помощи телефона без физическ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приложении госуслуг (정부24) для смартфонов с операционной системой Android будет доступна услуга мобильн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Ею можно буде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круглосуточных магазинах, аэропортах и на других объектах. В приложении будут отображаться полное имя, фотография, номер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адрес, а также QR-код,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подлинность данных.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ой нужно подтвердить свою личность в вышеуказанном приложении и ввести данные. Все процедуры должны выполняться на телефоне, оформленном на своё имя. На этом этапе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провер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системы, выявить и устранить недоработки. В полном масштабе система заработает с 12 июля. Приложение для смартфонов на операционной системе IOS, как ожидается, будет доступно с конца июля.

KBS World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2022 г. — 96 руб. 9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чти 400 дворов и более 400 подъезд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ремонтируют в этом году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 время объезд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ход ремонта дворов и домов. На сегодня в городе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227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уже получили субсидии на обновление подъездов в 41 дом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месте с мэр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ем Надсадиным осмотрели двор пятиэтажки на улице Дзержинского, 12. Недавно здесь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асфальтовое покрытие. Теперь жильцы ждут косметического ремонта входных групп и подъездов.

– Нужно покрасить стены и освежить штукатурку, сделать перила, обновить почтовые ящики, чтобы людям было приятно заходить домой. На эти работы мы выделяем управляющим компаниям субсидии. Комплексно необходимо подходить и к ремонту н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 заасфальтировать ямы, высадить цветы, навести порядок на детских площадках. Не нужно ждать годами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мы должны делать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ь людей сейчас,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дома Богдан Коваленко обратился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с просьбой – обновить отмостку пятиэтажки.

– Она уже вышла из строя. А нам отвечают, что отмостку по закону делают только вместе с фасадом, – поделился южносахалинец.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найти решение на запрос жильцов. Следующей точкой объезда стал двор на улице Сахалинской, где идет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Работы начались прошлым летом, сдач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июль.

– Мы заменили все инженерные коммуникации – хозяйственно-бытовую канализацию, питьевой водопровод, электросети. Установили наружное освещение, обустроили детскую, спортивную и игровую площадки. Сейчас двор готов для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я. Проект капремонта обсудили с жителями и учли их пожелания,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дрядчика Андрей Бородин.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осетили также двор дома №79 на улице Поповича. Три года назад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крышу пятиэтажки. В этом году обновят все внутридомовые инженерные сети, проведут ремонт входных групп и подъездов.

– После дождя у нас не двор, а сплошная лужа. В тучельках пройти невозможно, только в резиновых сапогах, – пожалова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пятиэтажки Надежда.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общил, что этим летом проезд заасфальтируют, 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двор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и заменят наружные сети. Капремонт фасада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2025 год, н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перенести работы на ранний срок.

– В этом году к текущему ремонту готов 391 двор в нашем городе. Капитальные работы охватят 17 дворов. В 111 домах отремонтируют подъезды и входные группы. Это в два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планировалось изначально. Если будет потребность у жителей, найдем возможности еще нарастить объемы,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 масштабной работе по приведению в порядок дворов помогают волонтеры.

– Добровольцы обходят домовладения и собирают пожелания жителей. Также они участвуют в составлении дефектных ведомостей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приемке проведенных работ. Мы, депутаты, тоже встречаемся с жителями во дворах. Реальное общение с людьми ничто не может заменить. Только так мы можем полу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из первых уст и преобразить город так, как хотят сами южносахалинцы, – сказал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лександр Шарифулин.

Отметил, что с последними поправками в областной бюджет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сферы ЖКХ увеличили более чем на 7 млрд рубле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позволят охватить капитальным и текущим ремонтом больше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и дом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го манеж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озведение объекта, необходимого островным спортсменам, возобновилось благодаря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строите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дать манеж изначальн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в 2024 году, но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ускорить работы.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егкой атлетикой занимается почти 6500 человек. И у на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должны быть самые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тренировок и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Мы с подрядчиком нашли выход из ситуации, и строители вернулись на площадку.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сахалинских строителей ждут большие объемы работы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о и в районах. Мы закладываем несколько школ, поликлиник, спортивных комплексов,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портивный объект на улице Больничной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собой манеж с трехэтажной пристройкой. В основном здании разместятся 6 овальных 200-метровых беговых дорожек, 8 – прямых длиной 60 метров, 2 – прямых длиной 100 метров, секторы для толкания ядра и метания копья, для прыжков в длину и высоту. Манеж оснастят современными системами хронометража и другим передов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ля зрителей предусмо-

тreno 400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Объект будет оборудован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что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адаптивного спорта.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манеж строи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высокими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стандартами.

– Благодаря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подрядчик смог увеличить сметную стоимость объекта и возобновить работы. Ранее стройка приостановилась из-за удорожания материалов. Задача на этот год – закрыть контур манежа, строители сейчас готовят металлоконструкции к монтажу, – поясни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Как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 ООО «СКФ «Сфера» – Андрей Залпин, вопросы по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ю материалов уже решены, вс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согласованы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гиона.

В манеже с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ы, так и любители спорта всех возрастов.

– Сахалинские легкоатлеты ждали крытый манеж более 20 лет. Многие годы зимой они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заниматься в крошечном подтрибунном помещении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и даже проводили там соревнования. Очень ждем сдачи манежа. Он поможет решить не только вопросы легкой атлетики, но и почти всех видов спорта, где необходима двигательная активность,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егкой атлетики Антон Воротыляк.

С появлением современного манежа спортсмены смогут в полную силу тренироваться в холодное время года. Появятся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влечь в легкую атлетику больше ребят, расширить кадровый состав, открыть новые дисциплины – к примеру, прыжки в высоту. Кроме того, сборные команды России смогут тренироваться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ед крупными стартами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Отметим,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позволили возобнов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ще одного важ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объек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центра бокс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взять на особый контроль все уже начатые в регионе стройки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обеспечив их своевременную сдачу.

Сахалинские студенты на средства федерального гранта организовали «Экопикник»

Интерактивная площадка стала главной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парка Гагарина в День молодежи. Во время традиционного субботнего объез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семейно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акции.

В шатре на озере Верхнем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подготовили десятки познавательны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развлечений – мастер-классы, чайные церемонии, йога,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полезные сладости, интересные лекции.

– Молодость – пора мечтаний и надежд, поиска жизненного пути, желания удивлять мир самыми смелыми идеями. Так и ребята 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задумали интересный экологический проект и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воплотили его в жизнь на радость жителям наше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ы – будущее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и нашей страны. Учитесь, творите, занимайтесь спортом, дружите, любите и со светлыми мыслями смотрите вперед! – пожелал молодеж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выступили также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и мэ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 Здорово, что молодежь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ет тренд на экологию. Забота о природе – это забота о будущем, – отметил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 Мне было очень приятно получить приглашение на «Экопикник». Когда энергия молодежи трансформируется в такие инициативы – это здорово. Мы все за то, чтобы наш город становился лучше и чище. Поэтому переводим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на экологичное топливо, создаем условия для любителей велосипедов и самокатов, – добавил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Экопикник» организовали студен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 средства федерального гранта Росмолодежи. Проект ребят в 2021 году выиграл 1,6 млн рублей.

– Хотелось создать лайтовую молодежную площадку. Чтобы это были не лекции про важность экологии, а полный интерактив, где участников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оденут, накормят, научат делать классные штуки своими руками. Никакой нудятины, – рассказал студент СахГУ и организатор акции Лим Ен Чер.

Гости «Экопикника» мог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одной СВОП-вечеринке – сдать надоевшую вещь из своего гардероба и получить другую нужную взамен. На соседних площадках учили, как из макулатуры сделать новую бумагу, а в перегоревшей лампочке – высадить флорариум. Южносахалинцы узнали рецепты натуральных конфет и тонкости чайных церемоний, разминались на йога-сессиях, шили трендовые сумки-шопперы из старых джинсов.

– На входе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обменять батарейки и пластиковые крышки на апельсины и яблоки. Рекорд по сдаче пластиковых крышечек установили ребята из лицея №1. Они собирали их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 рас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ъединенного совета обучающихся Анастасия Кокшарова.

В программе «Экопикника» нашлось место и для по-

знавательного лектория.

Спикеры московского экоцентра «Сборка» рассказали, как через свои бытовые привычки приносить пользу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как выбирать товары и не стать жертвой «зеленой спекуляции» на значках «Био», «Эко» или «Органик», как заменить «одноразовый вред» на «многоразовую пользу»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День молодежи гости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могли такж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вестах, фестивале мод, пенной вечеринке. На вечер была заготовлена большая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с хитами разных десятилетий. В 21:00 на сцену вышли хедлайнеры праздника – победительница «Новой Фабрики звезд» Гузель Хасанова и исполнитель хита «Поболело и прошло» Hensy.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втрое сократить сроки подключения к газовым сетям для бизнеса

Главной темой инвестсовета, который прове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тал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йтинг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По итогам 2022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5 самых привлекательных для бизнеса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и. Еще три года назад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занимал 43 место.

Такую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инвестиционному климату на островах дало само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 Нацрейтинг составляется на основе опрос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экспертной оценки деловых объединений и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данных. Оценка производится по 67 показателям в 22 направлениях, 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ее 90 процентов показателей выше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х.

– Важно, что наш регион оценило не начальство, а са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Мы дали себе время порадоваться вхождению в пятерку лучших, а теперь по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более высокие задачи. Подключение к газовым сетям необходимо ускорить втрое, то же самое – с водоснабжением и водоотведением. Чтобы облегчить предприятиям доступ к ресурсам, мы создаем три технопарка.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ускорять разрешительные процедуры для бизнеса, снижа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давление. Мы следим за практикам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и перенимаем самые успешные,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ходится в лучшей группе А Нацрейтинга по срокам регистрации пра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й на ввод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жилых домов и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получения в аренд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 Это большая общая победа. Победа бизнеса, для которого улучшились условия работы. И побе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которое ковало ее. Важно, что власти нацелены на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им сообществом. Когда мы начинали гонку за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рейтингом, мало кто верил в успех. Но во время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советов мы находили решение, как улучшить тот или иной показатель. Я был обрадован, когда мы заняли пятое место. И я верю, что мы можем продвигаться еще вперед,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ООО «Восточная горнорудная компания» Олег Мисевр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отметили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боты институтов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 По показател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ейчас занимает 13 место в России, в 2020 году она находилась на 43-ем. С той динамикой, которую сейчас взяли, есть все шансы войти в пятерку лучших регионов,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была проделана по устранению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барьеров. Уменьшились число проверок и штрафов, а также доля компаний, столкнувшихся с давлением со стороны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й. В среднем на каждое сахалинское предприятие приходится менее одной проверки в год.

– Высокий резуль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многом обеспечили эффективные механизмы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между властью и бизнесом.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гружен в вопросы, волнующ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на личном контроле держит их исполнение, – 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Ольга Курилова. – Мы гордимся,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находится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рейтинга. 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есмотря на два непростых года пандемии, вошла в пятерку лучших. Задача на будущее – расширять цифровизацию и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ускорять процедуры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Для бизнеса время – это деньги. Верю, что Сахалин удержит свои позиции, ведь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работают в тесной связи с бизнесом.

В Нацрейтинге учитывались такж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 ресурсы.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и качество дорожной сет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услуг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островах. Бизнес признал эффективность ме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и доступность кредитных ресурсов. Улучшились показатели доступности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Во многом это результат работы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которое адресно отвечает на запросы предприятий по поиску и подготовке необходимых кадр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기고]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페스티벌

고려인협회와 '화선' 예술학교가 협력해 주최

볼고그라드 '장교들의 집' 문화회관서 약 1천명 참석한 가운데 열려

지난 6월 26일 러시아 볼고그라드(구 스탈린그라드) '장교들의 집' 문화회관에서 고려인 페스티벌이 진행됐다. 고려인 페스티벌은 해마다 진행됐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약 3년간 진행되지 못했다. 오랜만에 진행된 볼고그라드 고려인 페스티벌은 약 1,00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6월 26일 러시아 볼고그라드(구 스탈린그라드) '장교들의 집' 문화회관에서 고려인 페스티벌이 진행됐다. (사진 정균오 선교사)

볼고그라드 고려인 페스티벌은 고려인협회와 '화선' 예술학교가 협력해 주최했다. 페스티벌의 주제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와의 만남'이었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통적인 한국 음식문화와 고전무용과 현대 K-Pop을 선보였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선보이기 위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3단계로 진행했다.

첫 번째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문화회관 로비에서 다양한 고려인들 음식문화를 선보였다. 약 10개의 부스를 마련해 고려인들이 먹는 음식을 판매했다. 고려인들은 과거 한국 음식과 현대 한국 음식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음식은 떡(찰떡, 시루떡, 증편), 순대, 감자 손만두와 두부가 대표적이다. 현대 한국 음식은 라면과 떡볶이와 김밥 등이다. 고려인들은 평소 구입하기 어려운 떡과 순대와 두부, 라면 등을 구입했다. 특별히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과 한국 식자재를 구입해 갔다.

문화회관 로비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무료로 한복을 대여해 주었다. 고려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한국문화를 경험했다. 고려인 페스티벌은 남북을 연결시키는 장이 되기도 했다. 북한 대사관에서 고려인 김 알렉세이에게 보낸 북한 수목화가 전시돼 북녘 산하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고려인들은 남북의 문화를 통해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됐다.

두 번째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문화회관 홀에서 본격적인 페스티벌이 진행됐다. 페스티벌은 러시아 문화에 따라서 고려인 대표 박 안드레이의 인사와 외부에서 온 손님들의 축하 인사로 시작됐다. 볼고그라드 주청의 민족성과 모스크바 전 러시아 고려인협회와 17개 민족 대표들의 축하 인사가 있었다. 콘서트 1부는 한국 전통문화를, 2부는 한국현대문화를 선보였다.

1부 시간에는 11개의 고전무용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볼고그라드에 있는 화선 예술학교 학생들이 부채춤과 북춤을 비롯한 고전무용 6가지를 선보였다. 화선 예술학교 팀은 고전무용 전문가 이 나타사의 지도로 한국을 오가며 익힌 수준 높은 실력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국 부채춤과 북춤, 소고춤을 통해 고려인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자각을 할 수 있었다.

아스트라한과 심페로폴, 엘리스타와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온 고려인팀들은 고전무용을 선보였다. 고려인들이 무대에서 선보이는 춤과 노래 중에는 북한 것도 있었다. 과거 러시아와 한국이 단절돼 있었을 때 고려인들은 북한과 교류가 많았기 때문이다. 고려인에게 남과 북은 돌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 있는 듯했다. 2부 시간에는 11개의 케이팝(K-POP) 공연과 태권도 시범이 무대에 올랐다. 9개 케이팝(K-POP) 공연은 볼고그라드 청년들이 발표했다. 2개는 엘리스타와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온 고려인 청년팀이 발표했다. 태권도는 고려인 김 레오니드가 사범으로 있는 '선민' 태권도 팀이 시범을 보였다. 러시아에서 태권도는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운동이 됐다. 태권도 시범 경기를 통해 고려인들은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적인 무술이라는 것에 자랑스러워했다.

K-POP 팀들의 실력은 대단했다. 마치 한국에서 직접 K-POP 팀들이 온 것과 같았다. K-POP 순서가 진행될 때는 청년들이 지르는 함성으로 문화회관이 떠나가는 듯했다. 세계적인 K-POP의 열풍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어른들은 청년들의 춤과 노래와 함성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같이 앉아서 즐기고 힘차게 박수를 보내 주었다.

고려인 페스티벌은 어린이와 청년과 노인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대 간에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됐다. 페스티벌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예상보다 30분 늦게 끝났다. 그러나 2시간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세 번째는 오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약 60명이 참석해 축하 만찬 시간을 가졌다. 무대에 참여했던 출연자들은 식당을 빌려서 그들끼리 축하 만찬 시간을 가졌다. 어른들은 러시아 전역에서 온 고려인 대표들과 각 민족 대표들과 함께 만찬 시간을 가졌다. 모스크바 고려인협회와 그라스나 다른 고려인협회, 아스트라한 고려인협회, 로스토프 고려인협회, 갈류끼 고려인협회, 크림 고려인협회에서 참석했다. 고려인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임을 확인하며 같이 즐거워했다.

고려인들뿐 아니라 17명의 민족 대표들이 페스티벌과 저녁 만찬에 참석했다. 볼고그라드에는 62개의 민족 대표들이 있는데 이들은 '민족 우정의 집'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민족 간의 우정을 다지고 있다. 고려인 페스티벌에 참석한 17명의 민족 대표들은 한결 같이 고려인들의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칭찬했다. 그리고 남북이 하나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고려인 페스티벌은 고려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모든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화합의 장이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금번 고려인 페스티벌은 한 민족만 모여서 즐거워하는 모임이 아닌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서 일치와 연합을 이룬 축제였다.

이 행사는 다양한 기관과 개인들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러시아 볼고그라드 주청 민족성에서 행사 장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전의 고려인 행사에 비해서 금번 행사는 고려인 자신들의 후원이 많았다. 이 행사를 위해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고려인이 후원했다. 한국에서는 새문안교회가 후원했다. 주러시아한국대사관에 초청장을 보냈으나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런 후원도 해주지 않아서 고려인 대표들이 매우 섭섭해 하는 것 같았다.

금번 볼고그라드 고려인 페스티벌을 진행한 '장교들의 집' 문화회관 홀은 800명이 정원이다. 고려인협회는 약 5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는 광고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야 약 300명 정도 참여하지 않을까 예상했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 달리 약 1,000명 정도 참석한 것 같다. 이 건물은 공산주의 시기에 지어진 것이어서 에어컨도 되지 않았다. 그날은 약 32도의 뜨거운 날씨였다. 약 1,000명의 청중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인해 문화회관 홀은 불탄 가마솥 같았다. 여기에 무대에서 발표하는 고려인 청년들의 열정으로 인해 사람들의 옷은 땀으로 범벅이 됐다. 그러나 정성껏 프로그램을 준비한 고려인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은 고려인들의 마음을 불태우기에 충분했다. 고려인들은 한국문화의 향수를 느끼며 한국문화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듯했다. 오랜만에 진행된 고려인 페스티벌은 그동안 한국문화에 목말랐던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우리는 이곳에 또 하나의 역사를 기록했다. 볼고그라드 고려인 페스티벌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고려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축제였다. 가까운 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오늘 고려인들은 여러 세대와 모든 민족이 모여 서로 존중하며 화합과 평화의 소중함을 선포했다. 특별히 6·25 제72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진행된 볼고그라드 고려인 페스티벌은 남북통일의 꿈을 러시아 땅에 기록한 날이 될 것이다.

(정균오 볼고그라드 선교사)
(출처: 재외동포신문)

우리 단지 사할린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길 [아파트 단상]

2010년 향남 복사꽃마을7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을 처음 만나게 됐다.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 당한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갔거나 그곳에서 태어났던 이들 중 일부가 지금 조국으로 다시 돌아와 이 땅에 살고 있다.



이은희 주택관리사/ 경기 화성행남 복사꽃마을8단지

우리 단지에는 총 51세대 103명이 왔다. 부부 25세대, 자매 혹은 동거인으로 1세대에 2인 거주 조건으로 들어온 26세대였다. 정부가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적십자사가 임차보증금을 부담한다.

우리 단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편이다. 입주 당시 공교롭게 북도 새시가 돼 있지 않아서 몇 분이 관계기관에 자주 진정을 넣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민원을 말할 때 러시아 특유의 억센 발음을 강하게 뱉어 눈살이 찌푸러지기도 했다.

어르신들은 다른 입주민과 어울리지 못했고 우리 말이 서툴러 사내 방송을 이해하지 못해 무슨 내용이나고 몰았다. 2012년 4월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평생학습마을 사업으로 단지 관리동 3층에 행복학습관이 마련됐다. 여기서 한글 문화수업이 계속 이어졌다. 어르신들은 낮에 컴퓨터도 배우고, 건강체조도 하고, 뜨개질 등의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으르내렸다.

최고 인기강좌는 매주 금요일의 노래교실이었다. 노래강사의 우리 가요에 맞춰 어르신들의 구성지고 구슬픈 음색이 관리사무소로 울려 퍼졌다. 우리는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한다. 그분들도 막연히 그리워한 조국에 와서 사할린에 두고 온 자녀와 손주들을 떠올리며 한 목소리로 감정을 풀어내는구나 싶었다.

여자 어르신들은 멋쟁이었다. 머리로 매만지고, 화장한 고운 모습으로 웃듯 깔끔히 차려입고 수업에 오셨다. 추운 사할린에서 지낸 탓인지 겨울에는 두꺼운 밉크코트에 털모자를 쓰고, 함께 단지 안을 거닐었다. 우리 에겐 이국적인 풍경이었다.

고 황의권 사할린회 회장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우연히 서류더미에서 그분과의 예전 회의 사진을 발견하고선 가슴이 뭉클했다.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굶은 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다. 2016년 위암 수술 후 무척이나 야윈 모습으로 "아무도 회장 일을 안하러 한다"며 웃으면서 회의에 참석했던 회장님의 생전 모습이 떠올랐다. 위암이 재발해 다시 입원하기 전까지 사할린 동포를 위한 회장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셨다. 병문안 한 번 못 갔던 것이 죄송하다.

지금은 이춘기 회장님이 사할린 동포들의 이동 사정, 세대 전호번호 등 내가 갖고있는 자료 중에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 및 보완해 주고 민원도 돌봐주신다.

사할린 어르신들은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꼭 모임을 하고 내게도 빨간 장미 한 송이와 간단한 선물도 주셨다. 한 달에 한 번은 생일파티를 했다. 매년 6-9월 사할린을 다녀오셨다. 한국의 더위도 피할 겸 그곳에 남아있는 자녀를 만나거나 연금 등의 확인을 위해서였다.

이곳으로 나올 때 두 분씩 같이 맺어졌는데 살면서 뜻이 안 맞아 혼자 살고 싶다는 분도 있다. 가스레인지에 선을 그어 이 구멍은 네 것,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분도 있다. 생활습관이 다르면 같이 사는 게 스트레스가 돼 비용 부담이 커져도 혼자 살기를 신청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났다. 실제로 2인 가구 약 7세대가 1인 가구로 독립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아픈 분들이 생겨났다.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거주지는 화성시의 향남읍을 비롯해 안산, 김포 등 전국 21개 지역이 있다. 전출을 희망하는 분들은 회장단과 협의 후 적십자사의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옮겨 가게 지원해 드렸다. 러시아어 강사를 한 인텔리 김정자님도 언니가 계신다는 안산으로 가셨다. 몸이 아팠던 서경남님 부부는 수원 병원을 1년여 오가며 힘들게 살다 병원이 있는 안산으로 가셨다.

돌아가신 분, 이사 가신 분도 있어 지금은 70여 분만 거주한다. 그런 대로 적응했지만 러시아에 두고 온 자녀들을 불러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인 어르신들이 많다. 다행히 자녀들의 영주 귀국을 가능하게 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1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손주들은 법 적용이 안 돼 또 하나의 이산가족문제가 생겨 안타깝다.

최근 김승 소설가의 '떠도는 땅'이란 소설을 관심 있게 읽었다. 스탈린 시대에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쫓겨나는 우리 한인들의 열차 안의 광경을 묘사했다. 나라 없는 백성들의 비참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국 사할린에서 성장하고 조국으로 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많이 외로웠을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 남아있는 분들이 편안히 살고, 이곳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지원하고 싶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사할린에서의 삶의 애환을 구술받아 기록해둔다면 우리가 진 빛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솔네츠나야 공터에서 국제 요가의 날을 기념

제8회 국제 요가의 날을 맞아 사할린에서 대규모 축제로 기념했다. 웨스트초츠키 마을 근처 솔네츠나야 공터에서 여러 준비 수준의 참가자들을 고려해 10개의 요가 훈련이 진행됐다.

솔네츠나야 공터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와 네웰스크, 코르사코브 등지의 규모 있는 요가 교실들이 다양한 방면의 요가를 축제의 참가자들에게 알려주고,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모였다.

요가 민속음악이 분위기를 돋우는 가운데 행사가 시작되었다.

행사 주최 회장인 소피야 리트위노와의 말에 따르면 이 행사는 참가자 각자가 자신 안에 조화를 느끼고, 자신의 몸의 가능성과 새로운 각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되었다고 한다.

"훈련에 있어서 우리는 아동을 포함해 참가자 각자가 따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했다. 참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숨쉬기 훈련, 못 위에서 있기, 정소리 명상과 실습으로 소리 치유, 자유로운 춤이 있다."고 주최자가 말했다.

축제 방문객들은 인도의 전통 요리를 맛보기도 하고, 아마추어 요리사 벤자민은 렌틸콩으로 수프와 병아리콩 샐러드, 유명 빵을 준비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무료 다도를 진행하며, 다양한 종류의 음료를 소개하고 각각의 효능을 설명했다.

이 같은 대규모 야외 행사는 사할린주에서 처음 열렸다.

참가자들의 말에 따르면 공동 훈련으로 여러 강사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한 곳에 머물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익힐 수 있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отмети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йоги на Солнечной поляне

Масштабным фестивалем отпраздновали на Сахалине VIII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йоги. На Солнечной поляне в Восточке провели сразу 10 практик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любого уровня подготовки.

На «Солнечной поляне» собрались все крупные студи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ивы, Невельска и Корсакова, чтобы провести практики и познакомить участников фестиваля с различ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йоги.

Открывали мероприятие и задавали настроение музыкальные этно-группы. По словам главного организатора Софии Литвиновой, праздник создавал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мог почувствовать гармонию внутри себя, открыть новые грани и возможности своего тела.

— В качестве практик мы выбрали направления, которые доступны каждому, в том числе и детям. Также в программе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дыхательная практика, стояние на гвоздях, гонг медитация, практики: исцеления звуком и свободного танца, — рассказала организатор.

Гости фестиваля попробовали традиционную индийскую кухню. Повар-любитель Бенжамин приготовил чечевичный суп, салат с нутом и фирменные лепёшки. Кроме того,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бесплатно провели чайную церемонию, познакомили с различными сортами этого напитка и рассказали, в чем польза каждого.

Такое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и впервые. По словам участников, общие практики позволяю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различным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и освоить новые программы, находясь в одном мест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한국에서 박해도 님 별세

레닌의 길로(현 새고려신문) 신문사에서 장기간 근무하셨던 박해도 씨가 중환으로 한국 인천 광역시에서 향년 81세를 일기로 별세



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해도 선생님은 1979년에 신문사에 입사하여 기자, 정보농업부부장, 사상부 부장을 역임했고 1993년에 퇴사하셨습니다.

고급 수준의 한국어 전문가이셨으며, 늘 밝으셨던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н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